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정 연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소원 인지를 위한
등화(燈畵) 연구

- 나의 작품을 중심으로 -

2025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배 윤 진

소원 인지를 위한
등화(燈畵) 연구
- 나의 작품을 중심으로 -

김 정 연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4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배 윤 진


인 준 서

배윤진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4년 12월

심사위원장 박영근 

심사위원 조병왕 

심사위원 김정연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이 논문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작업한 <등의 초상> 연작을 중심으로 작품의 내용이 성립된 과정과 주제를 회화로 표현한 방법을 서술한 것이다. 등(燈)의 초상은 등불의 초상화라는 의미로, 소원을 등불로 표현한 나의 회화 작업을 이른다.

오랜 시간 사람들은 소원을 빌어왔다.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담아 빌던 행위들은 점차 다양한 문화로 자리 잡기도 했다. 나는 이러한 기원(祈願) 의식에 대해 알아보던 중 빛과 관련된 것이 많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빛을 밝히는 것은 인간의 삶에 필요한 행동이었으면서 동시에 상징성을 지닌다. 나는 이 같은 사실에서 착안하여 소원을 표현하기 위해 등불의 형상을 빌려왔다.

나 또한 소원이 있다. 이 소원은 내 삶을 지탱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할 만큼 나에게 있어 중요하다. 초기에는 나의 소원을 등불로 표현한 자화상 작업을 했다. 사람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어떤 대상에 자신의 소원을 투영하고 이루어지길 바라기도 한다. 나에게서 등불이 그런 대상이었다. 바라는 마음을 담아 등을 그리는 것은 마치 내 나뭇잎의 기원 의식 같았다. 나에게 소원이 가지는 의미를 확실하게 인지하고 이를 회화로 표현함으로써 안정감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런 감정을 다른 사람들도 느낀다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후 내 소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주제 의식을 확장하고 여러 등불을 그리기 시작한 것이 등의 초상 연작이다.

나는 내 작업을 보는 사람들 각자가 자기 소원에 대해 생각하고 인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소원을 등의 모습으로 은유해 표현했고,

어둠과 밝음의 대비를 극명하게 만들어 등불의 빛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촉각적인 느낌을 연상할 수 있는 재료인 소프트 파스텔을 사용했다. 화면 위에 소프트 파스텔을 칠하고 문지르기를 반복하며 이 과정이 소원에 대한 나의 간절함과 연결되는 것처럼 느꼈다.

이 논문에서는 내 작업의 이론적 배경이 전개된 과정을 되짚어보고, 소원 인지라는 주제를 조형적으로 표현한 방법을 기술하였다. 이를 위해 회화에서 촉감이라는 요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탐구해 보았다. 그리고 촛불을 회화의 소재로 다루었던 작가와 작품에 대해 알아보고 내 작업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를 통해 앞으로 만들어갈 작품의 방향성과 발전 가능성을 타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작업을 전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본론	3
1. 작업의 내용적 전개	3
1) 기원 의식과 빛의 관계	3
2) 소원 인지와 축각적 표현	5
2. 작업의 조형적 전개	8
1) 등불의 형상	8
2) 빛과 어둠	12
3) 소프트 파스텔	14
3. 작품 분석	16
III. 결론	31

참고문헌

ABSTRACT

작 품 목 차

[작품 1] <등의 초상>, 97×130.3cm, soft pastel on panel, 2022-2023

[작품 2] <등의 초상-명멸>, 116.8×80.3cm, soft pastel on panel, 2023

[작품 3] <등의 초상-명멸>, 116.8×80.3cm, soft pastel on panel, 2023

[작품 4] <등의 초상>, 65.1×53cm, soft pastel on panel, 2023

[작품 5] <등의 초상>, 65.1×53cm, soft pastel, acrylic on panel, 2023-2024

[작품 6] <등의 초상>, 116.8×50cm, soft pastel, acrylic on panel, 2023

[작품 7] <등의 초상>, 116.8×50cm, soft pastel, acrylic on panel, 2023

[작품 8] <등의 초상>, 145.5×97cm, soft pastel, acrylic on panel, 2023

[작품 9] <등의 초상>, 193.9×97cm, soft pastel, acrylic on panel, 2024

[작품 10] <등의 초상>, 145.5×112.1cm, oil on canvas, 2023-2024

도 판 목 차

[도판 1] George de la Tour, The Penitent Magdalene, 133×102cm, oil on canvas, 1625-1640

[도판 2] 본인작업, 등화 - 내면의 빛, 112.1×145.5cm, oil on canvas, 2020

[도판 3] 본인작업, 등화 - 내면의 빛, 116.8×72.7cm, oil on canvas, 2020

[도판 4] Gerhard Richter, Two candles, 121.92×101.6cm, oil on linen, 1982

I. 서론

삶은 종종 긴 여정에 비유되곤 한다. 우리는 이따금 이 여정에서 길을 잃고 헤맨다. 과거에 비해 문명이 발전했고 그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가능성도 다원화되었다. 하지만 나는 늘어난 선택지가 오히려 우리에게 혼란을 주기도 한다고 느낀다. 이럴 때야말로 자기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다. 이 소원을 이루는 것이 내 인생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소원은 나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나는 내가 바라는 바를 깨닫고 이를 바탕으로 내 삶의 방향을 정립할 수 있었다. 그리고 삶의 무게를 환기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다른 사람에게도 자기 소원을 떠올려 볼 것을 제안하고 싶다. 나의 경우처럼 다른 사람들도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깨닫는 일이 가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스스로를 들여다본다면, 근원적으로 자기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이를 위해 나는 등불을 그린다.

나는 나의 작업을 등화라고 부른다. 본래 등화(燈火)는 등불을 뜻하는 한자어이지만, 나는 여기에 등화(燈畫, 등불을 그린 그림)라는 의미를 더했다. 등불의 모습만을 그린 작업은 등의 초상(肖像)이라 이름 붙였다. 등(燈)은 불을 켜서 어둠을 밝히는 도구이다. 그리고 등불은 희망을 주는 존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 소원은 나에게 등불의 역할을 해왔다. 작품을 만드는 것이 소원을 이루는 직접적인 원동력이 되지는 않지만, 작업을 하는 동안 내가 바라는 바를 끊임없이 상기함으로써 내 삶의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

본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오랜 시간 이루어져 온 기원의

식에서 빛이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살펴보았다. 더불어 내게 소원 인지가 가지는 의미와, 이를 촉감과 연결 지어 회화로 표현한 이유를 이야기하였다. 2장은 나의 작업을 보는 사람이 자기 소원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조형적으로 어떻게 접근하였는지 서술하였다. 작업의 특징에 따라 형상, 색채, 재료의 세 요소로 나눠 각각 설명하였다. 3장에서는 앞선 두 장의 내용을 토대로 작품을 제작한 과정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였다. 결론은 서론과 본론의 내용을 개괄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견한 작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성과를 언급하며 마무리 지었다. 이 논문으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바를 고찰하여 작품의 내용과 방법적인 면에서 발전을 이루길 바란다.

II. 본 론

1. 작업의 내용적 전개

1) 기원 의식과 빛의 관계

우리는 일상에서 종종 소원을 빌곤 한다. 소원(所願)은 어떤 일이 이루어지길 바람, 또는 그런 일을 뜻한다.¹⁾ 간절히 원하는 게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기원의 행위들을 했고 이는 다양한 의식으로 자리 잡기도 하였다.

소원을 등불로 표현하게 된 계기는 한 경험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나에게 종교는 없지만, 석가탄신일이 가까워질 때 절을 방문한 적이 있다. 석가탄신일을 앞둔 시기가 되면 많은 사찰에서 연등회를 진행한다. 연등회는 본래 부처가 오신 뜻을 새기는 불교의례인데, 초에 불을 붙이거나 연등을 달며 소원을 비는 등 오늘날까지 축제의 형식으로 전승되고 있다.²⁾ 내가 갔던 절에도 사람들의 소망이 적힌 연등이 빼곡히 달려있었다. 수많은 연등을 보고 난 이후 나는 등불의 형태를 빌려 내 소원을 표현하기로 마음먹었다.

비단 4월 초파일연등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여러 나라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불빛을 보고 소원을 빌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산사에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으면서 소망등을 다는 풍습이 있었다.³⁾ 또한 대보름에는 궁궐에서부터 마을에 이르기까지 곳곳마다 등을 달아 불을 켜곤 했

1) 네이버 국어사전, 표준국어대사전,

<https://ko.dict.naver.com/#/entry/koko/50747662a638410ca098f494a2817842>

2) 구미래, 「연등(燃燈)의 상징성과 민속적 수용양상」, 불교학보 0.66, 2013, p.296 참고

3) 이윤수, 「전통등(燈)의 현대적 활용을 위한 콘텐츠 연구」, 콘텐츠 문화 8, 2016, p.73

다. 연등을 달아 주변을 환히 밝힘으로써 원하는 바를 성취하고자 하는 뜻을 담았던 것이다. 아울러 소원을 적은 종이를 태우며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했던 소지축원(所持祝願)도 대보름에 행해진 민속이다.⁴⁾ 중국이나 일본, 태국 등의 나라에도 등을 하늘로 띄우거나 밝히는 축제가 있다.

아시아 외의 문화권에서도 불빛은 기원의 대상이거나 의식에 필요한 요소였던 것으로 보인다. 조로아스터교는 BC 6세기경 고대 페르시아의 예언자 차라투스트라가 창시한 종교로 찬란한 빛의 신 ‘아후라 마즈다’를 숭배한다. 조로아스터교의 전통이 남아있는 이란에서는 새해 전 다양한 불꽃놀이 행사가 열리고, 지역마다 모닥불을 피워놓고 축제를 벌인다. 모닥불을 뛰어넘는 것은 일종의 정화의식으로 불을 신성시하는 조로아스터교의 흔적이다.⁵⁾

그리스 신화와 종교에서도 불은 성스러움의 근원으로 여겨졌다.⁶⁾ 그리스인들은 제물을 불태워 신들에게 바치는 희생제의를 지냈는데, 이는 신들에게 특정한 부탁을 하거나 죄에 대한 정화를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⁷⁾ 신약성서 안에도 등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⁸⁾ 이처럼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랜 시간 사람들은 빛을 신성시하거나 불빛을 통해 기원의식을 행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나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소원을 등불로 표현하였다. 많은 이들이 빛을 보며 축원(祝願) 하는 것처럼 나는 그림을 그림으로써 기원의 등불을 밝힌다.

4) 구미래, 「연등(燃燈)의 상징성과 민속적 수용양상」, 불교학보 0.66, 2013, p.283 참고

5) 조승연, 「불과 민속 - 불을 신성시하고 숭배하는 종교, 조로아스터교」, 防災와 保險 121, 2007, pp.61-63

6) 장영란, 「불의 상징과 형이상학」, 철학과 현상학 연구 38, 2008, p.127

7) 위의 논문, p.130

8) 여기서 등불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거나 진리를 찾는 것에 가깝다는 해석을 하지만 서양에서도 등불은 어두움을 밝히며, 불을 켜 들고 있는 것은 깨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상징하였다(마태 5, 15 필립 2, 15).

2) 소원 인지와 촉각적 표현

소원을 이루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은 내가 삶을 대하는 태도에 영향을 주었다. 내게 가장 중요한 것,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걸 언제나 잊지 않음으로써 자연스레 내 삶의 의미와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었다. 삶의 의미는 불안정한 삶에 안정성을 부여해준다고 한다.⁹⁾ 이러한 마음이 이후 내 작업의 모티브가 되었다. 나는 내 소원을 마음으로 되뇌며 작업하는데, 이 과정은 나에게 자기 이해의 한 방식으로 다가온다. 내게 소중한 것을 그리는 일이 나를 이루는 조각 중 하나가 된 것처럼 느끼곤 한다.

나에게 소원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만큼 개인적인 것이기에 타인에게 내용을 굳이 밝히지는 않을 것이다. 내 소원이 무엇인지 말하면 그것을 대하는 나의 진정성이 열어져 이루어질 힘을 잃어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또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남들에게 밝히지 않고 혼자 간직하고 싶다는 마음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오래되면서 소원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는 것이 마치 나의 신념과 같이 자리 잡게 되었다.

단지 등불을 그리는 것만으로는 나에게 소원이 어떤 의미인지 드러내기에 충분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회화를 보는 순간을 떠올려보면, 시각적 이미지만 강조되는 경우 보다 촉각적인 느낌이 가미될 때 작품을 이해할 맥락이 더욱 풍부해지곤 한다. 나는 주로 소프트 파스텔을 사용해 그림을 그린다. 소프트 파스텔은 손으로 직접 만지면서 그리게 된다는 점에서 물감보다 촉각적인 느낌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매개체 없이 파스텔을 손수 칠하고 문지르는 과정을 통해 소원에 대한 나의 간절함을 담아내려 했다. 파스텔을 쌓아 올린 행위는 화면 위에 고스란히 흔적을 남겼다. 소원을 대하는 나의 마음이 이 흔적을 통해 읽어지기를 바랐다.

9) 박선영, 권석만, 「삶의 의미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임상적 함의」,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3, 2012, p.748

우리는 대상을 순수하게 이해하게 되었을 때 ‘공감(共感)’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곤 하는데, 이는 촉감의 개념과 연동해서 생각해볼 수 있다. 촉감은 단순히 일방적이고 우연한 것이 아니다. 만진다, 느낀다는 것은, 우리의 감각(感覺)이 감정(感情)과 공감하여 감동(感動)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접촉, 만짐, 닿음으로서의 촉감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가능성을 열어둔다.¹⁰⁾



[도판 1] George de la Tour, The Penitent Magdalene,
133×102cm, oil on canvas, 1625-1640

10) 이주현, 「촉각 자극을 통한 감정 조절 중재 효과를 가지는 조형예술 작품」, 디자인학연구 35.3, 2022, p.96

회화에서 촉각적 심상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조르주 드 라 투르 (George de la Tour, 1593-1652)의 작품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조르주 드 라 투르는 17세기 촛불 그림을 대표하는 화가이다. 드 라 투르의 회화는 일견 단순한 듯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매우 세밀하게 묘사된 사물의 질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림 속 막달레나가 입고 있는 옷감, 긴 머리칼의 결, 거울을 둘러싼 금속 테두리의 조각과 매끄러운 해골은 마치 손을 뻗으면 만질 수 있을 것처럼 섬세하게 그려져 있다.

드 라 투르가 이토록 집요하게 질감을 묘사한 이유를 알기 위해선 그가 살았던 시대의 모습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17세기 로렌 지역은 전쟁과 기근,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목숨을 잃었다. 격변으로 인한 외상을 겪은 사람들은 그 트라우마를 불러일으키는 기억을 떠올리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소중한 사람을 잃은 이들에게는 상실에 대한 애도 과정이 필요하다. 드 라 투르의 회화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촛불은 이 애도 의식에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물건이다.¹¹⁾ 그는 촛불이란 조명에 기대어 사물의 질감에 유난히 천착한다. 이처럼 시각에서 출발해서 촉각으로 전이되는 시각의 변화는 심리학적 측면에서 볼 때 대상을 좀 더 직접적으로 느끼고자 하는 욕망과 의지에서 연유한다. 그런데 이러한 욕망과 의지가 억압된 기억의 대면과 해소에 커다란 역할을 담당한다고 한다. 그런 심리적 기제를 고려해 그림을 보면, 드 라 투르 그림의 촛불은 애도 과정의 촉매제이자 동시에 촉각적 지각을 통해 억압된 외상성 기억에 대한 일종의 카타르시스의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¹²⁾ 이처럼 촉각적 심상은 회화를 읽어낼 새로운 여지를 제공하곤 한다.

11) 김승환, 『서양미술과 촛불』, 아르테스 시각문화연구소, 2022, pp.116-119 참고

12) 위의 책, pp.119-120

2. 작업의 조형적 전개

1) 등불의 형상



[도판 2] 본인작업, 등화 - 내면의 빛, 112.1×145.5cm, oil on canvas, 2020

작업 초기에는 소원이 나에게 중요한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이를 회화로 표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 시기에는 빛을 표현하는 것이 좋을지 등 자체를 그리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였다. [도판 2]는 처음으로 그렸던 자화상 작업이다. 나의 소원과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내 모습을 표현하였는데, 특히 소원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밝게 빛나는 등불로 시각화해 보여주고자 했다. 이를 위해 등의 모양이 아닌 빛으로서의 모습을 강조했다.

이후 점차 빛이 아닌 등불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했다. 소원을 등불로 표

현하게 된 이유는 단순히 자연현상으로서의 빛을 포착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사람들이 소원을 비는 현상은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져 왔고, 일종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나는 자연 그대로의 빛이 아닌 문명의 산물이면서 상징성을 지니는 등불이 소원을 나타내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몇 번의 자화상 작업 후 나는 과연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단순히 내 이야기를 회화로 표현하는 것에서 나아가 보는 사람이 공감하거나 감정을 이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고 싶었다.



[도판 3] 본인작업, 등화-내면의 빛, 116.8×72.7cm, oil on canvas, 2020

인물에 익명성을 부여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내가 그리고 싶은 것이 과연 인물인지도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였다. 나는 사람들이 내 작업을 보며 자기 소원을 떠올리기를 바랐다. 밝게 빛나는 등을 바라보는 순간이 스스로 내면을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기를 원한 것이다. 이를 위해 내가 그린 등불이 사람들을 저마다 명상의 세계로 인도하는 매개체가 되었으면 했다. 그림 하나로 보는 이의 내면까지 스며들기란 어려울지도 모른다. 복잡한 형태나 화려한 색채로 시선을 분산시키기보다 단순하지만 명확한 느낌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중요한 것은 등불이니 그 외의 요소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았고, 이내 화면 안에서 인물을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나는 등불만을 그리게 된다.



[도판 4] Gerhard Richter, Two candles, 121.92×101.6cm, oil on linen, 1982

게르하르트 리히터(Gerhard Richter, 1932-)는 1982년에서 1983년까지 촛불을 회화의 소재로 다루었다. 이 시기 리히터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은 17세기 프랑스 화가 조르주 드 라 투르였다. 바니타스 정물화에 관심을 둔 리히터는 촛불과 해골을 여러 번 반복해서 그렸다. 2차 대전이라는 외상적 기억을 지닌 리히터는 이 시리즈를 작업하면서 명상과 기억, 침묵, 죽음과 관련된 감정을 체험했다고 한다. 이 사실을 고려하면 리히터의 촛불은 바니타스적 해석을 넘어 앞서 언급한 드 라 투르의 사례처럼 애도의 상징으로 읽을 수도 있을 것이다.¹³⁾

나는 빛나는 대상을 회화의 소재로 다룬다는 점에서 리히터의 <촛불> 시리즈와 내 작업에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했다. 각각 초와 등이 상징물의 역할을 한다는 점도 비슷한 맥락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리히터의 촛불은 바니타스 정물이면서 애도의 상징인 반면, 나의 등불은 보는 사람의 소원 인지를 위한 표상이라는 점에서 각각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

13) 김승환, 『서양미술과 촛불』, 아르테스 시각문화연구소, 2022, pp.230-236 참고

2) 빛과 어둠

어두운 공간에 빛이 들어와 형(形)이 드러나듯, 나는 흰색 파스텔을 쌓아 어둠 속에 있는 등불의 모습이 드러나게 한다는 생각으로 작업을 진행한다. 대부분의 내 작업은 흑과 백, 두 가지 색이 주를 이루고 있다. 나는 바탕이 되는 나무 패널을 검은색으로 칠하고 그 위에 흰색 파스텔을 올리는 방식으로 화면을 구축한다.

색채의 세 가지 속성은 색상, 명도, 채도이다. 나는 이 중 색상과 채도를 제한하고 명도를 주로 활용했다. 빛은 어둠이 있을 때 그 존재를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다. 빛과 어둠의 대비는 명도를 통해 가장 명확하게 보였고 나는 이를 유념하며 화면을 구성했다. 나는 관람자에게 내가 그린 등을 보며 자기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떠올리는 일종의 명상적 경험을 하길 바랐기 때문에 부가적인 요소가 아닌 빛에 주목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더불어 여러 색을 사용할 경우 색감 자체가 눈길을 끌어버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색이 아닌 명도에 집중하였다. 다만 빛을 강조하기 위해 흑백을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색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었다. 경우에 따라 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색조를 사용하기도 했다.

매체의 발달로 다양한 색상을 구현할 수 있게 된 후에도 많은 예술가가 흑백을 활용해 작품을 제작하고 있다. 어떤 사진작가들은 흑백 필름이 컬러 필름보다 풍부한 표현력을 지닌 매체라고 이야기한다. 이들은 색에 따른 관심의 분산이 없으면 형태, 농담의 변이, 질감, 구성, 균형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¹⁴⁾ 일부 영화감독들 또한 컬러 영화가 영화계에서 주류가 된 이후에도 흑백영화 형식을 채택하고 있다. 흑백 이미지의 시각적 자극은 단순하지만 이로 인해 디테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

14) MacDonald, Lindsay, 『색채와 컴퓨터 그래픽』,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1, p.84

고 관객의 심리적인 참여를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¹⁵⁾

내 작업의 경우 색을 제한함으로써 그림에서 소프트 파스텔의 촉각적 질감이 드러났다. 더불어 화면의 단순성과 극적인 대비를 통해 고요하고 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었다. 이 같은 효과는 관람자를 내면의 명상 세계로 인도하고자 하는 나의 의도와 맞아떨어져 보였다. 색을 고를 필요가 없기에 나 또한 색에 대한 고민이나 상념 없이 그리기에 몰두할 수 있었다. 이후 나는 흑과 백 두 가지 색을 주축으로 화면 위에 빛과 어둠을 만들어나갔다.

15) 문정미, 「디지털 시대의 흑백영화 미학」,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6.2, 2022, p.70

3) 소프트 파스텔

등의 초상 이전 작업은 주로 유화를 사용했다. 빛을 강조함으로써 드러나는 극적인 명암 대비와 색감을 표현하기에 유화가 알맞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유화로 그려낸 빛은 유분기에 의해 반짝였고 이로 인해 눈에 띄었다. 또한 붓질의 강도에 따라 붓 자국이 남기도 했다. 초기 작업에는 유화가 적합했지만, 주제 의식을 확장하면서 다른 표현 방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새로운 재료로 나는 소프트 파스텔을 선택했다. 유화와 비교했을 때 소프트 파스텔로 칠한 면은 광택이 두드러지지 않았고, 시선을 붙잡는 마티에르(matière) 없이 부드러운 표면을 만들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소프트 파스텔로 표현한 빛은 은은한 인상을 주었다. 상술한 특징이 내가 바라는 관조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에 적합하다고 여겨졌다.

명징(明澄)한 흰색을 표현하기 위해 오일 파스텔을 사용해 본 적도 있다. 오일 파스텔은 소프트 파스텔보다 선명하게 발색할 수 있었지만, 유화와 비슷한 특유의 뭉침이 내가 원하는 빛의 묘사와 어울리지 않아 보였다. 또한 오일 파스텔은 손으로 칠하거나 문지르기가 쉽지 않아 촉각적인 표현에 제한이 생겼다. 재료의 성질이 내가 원하는 방향성과 다르다고 생각해 다시 소프트 파스텔을 사용하게 되었다.

어떤 바탕에 그릴 것인지도 고민해야 할 문제였다. 면을 고르게 칠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날카롭게 묘사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단단한 지지체가 필요했고, 나는 이에 대한 해답으로 나무 패널을 떠올렸다. 사용해 본 결과 나무 패널은 탄성이 없고 형태가 잘 유지돼 세밀한 표현이 가능했다. 내가 그림을 그리면서 주는 힘의 강약이 고스란히 남는 것도 특징적인 부분이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종이나 캔버스에 비해 나무 패널은 질감이

도드라지는 바탕이다. 나뭇결은 그 자체로 촉감을 떠올릴 수 있는 요소일 뿐만 아니라, 소프트 파스텔을 올릴 경우 파인 부분에 안료 입자가 들어가 새로운 층이 형성되면서 독특한 깊이감이 나타났다. 나는 이 표면이 새로운 느낌을 주어 만족스러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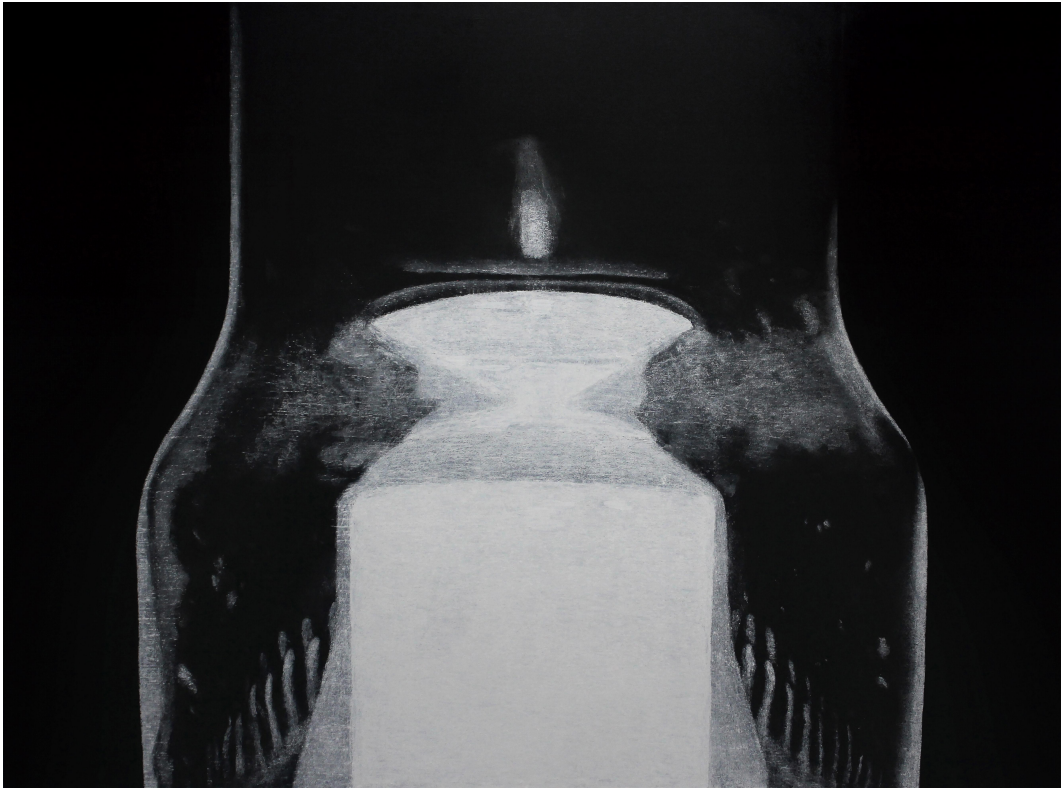
나무 패널은 내가 원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지지체였지만, 한계도 있었다. 소프트 파스텔이 화면 위에 고착되기 위해선 바탕이 되는 면에 안료를 붙잡을 요철이 필요하다. 하지만 나뭇결의 오목한 부분은 소프트 파스텔을 정착시키기에 충분할 만큼 깊지 않았다. 그렇기에 소프트 파스텔을 칠하고 문지를 때, 또 그 위에 다시 쌓을 때 섬세한 힘 조절이 필요했고 소중한 것을 다루듯이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그리고 이를 반복해야만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방법이 소원에 대한 나의 간절함을 담기에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재료의 한계가 오히려 주제와 연결되는 방법론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3. 작품 분석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처럼 각자 염원하는 것이 있을 거라 믿는다. 나는 그림으로 스스로의 소원을 형상에 담을 수 있지만 그림을 그리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기가 어려울 것이다. 소원에 대해 떠올렸을 때 그 심상은 어렵קות한 경우가 많다. 나는 구체적인 상징이 있을 때 사람들이 소원을 연상하기 좋을 거라 생각했다. 내가 나의 소원에 등불의 모양을 씌운 것처럼, 저마다의 바람에 형상을 만들어줄 수 있기를 바랐다. 등의 초상은 이 같은 마음에서 시작되었다.

건식 재료인 소프트 파스텔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루로 부서질 수도 형태를 이룰 수도 있다. 나는 이 점이 마치 간절히 바라지만 손에 닿지 않는 소원의 막연함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의 지극한 마음이 모여 형태를 갖추으로써 소원이 이루어질 가능성 혹은 원동력이 될 것 같다고 느껴졌다. 흩어지기 쉬운 재료가 나의 간절함을 담은 행위로 인해 소망을 담을 수 있는 등불로 변모한다는 생각을 한다.

소프트 파스텔로 만드는 화면은 축적성이 두드러진다. 나무 패널 위에 소프트 파스텔을 칠하면 한 번에 선명한 색이 나오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흰색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쌓아 나갈 수밖에 없다. 화면 위에 이러한 과정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 나는 강한 마티에르가 생기지 않게 했다. 순간적인 인상보다 시간을 들인 느낌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인내심을 가지고 서서히, 조심스럽게 등을 만들어내는 자세는 마치 소원을 대하는 나의 마음과 비슷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누군가 내 작품을 보며 소원에 대한 간절함의 소산(所産)이라고 여겨 주길 바란다.



[작품 1] 등의 초상, 97×130.3cm, soft pastel on panel, 2022-2023

[작품 1]은 등의 초상 연작의 첫 번째 작업이면서 처음으로 소프트 파스텔을 사용했던 그림이다. 먼지나 유리 표면에 빛이 반사되어 생긴 반영(反影)이 이 이미지의 분위기를 자아내는 핵심 요소라 생각했다. 몇 년 전 공기 중의 먼지 입자에 반사된 빛이 마치 우주의 별처럼 보인다는 비유를 토대로 작업한 경험이 있다. 이때의 단상에서 착안하여 반영을 표현하기 위한 재료로 소프트 파스텔을 떠올린 것으로 짐작한다.

화면 중앙에서 하단으로 이어지는 흰색 부분을 원하는 명도로 만들기 위해 파스텔을 반복해서 쌓아 올렸다. 흰색 파스텔로 고르게 칠한 뒤 손으로 문질러 균일한 톤을 만들어냈다. 이때 파스텔 가루가 나뭇결 틈틈이 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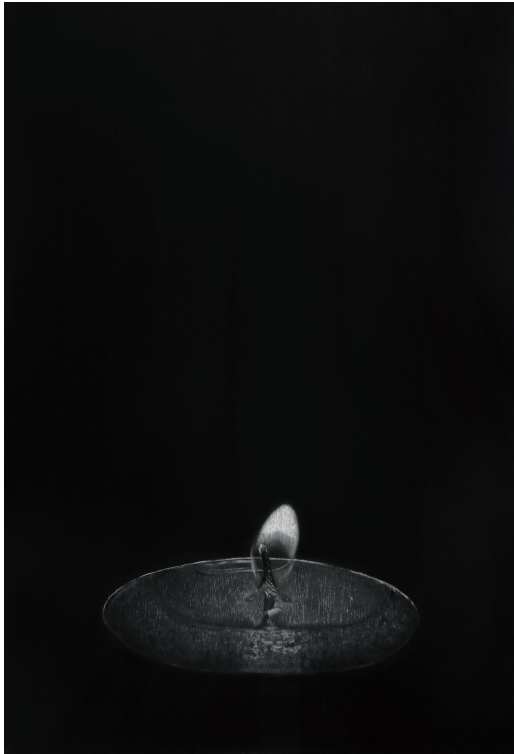
갔다. 그 뒤에 GAC 100¹⁶⁾과 물을 섞은 용액을 화면 위에 미세하게 분사시켰다. 이는 안료를 고착시키기 위함으로 이 단계를 거치면 쌓아 올린 파스텔 층이 새로운 표면이 되었다. 뿌린 용액이 모두 건조되면 상술한 과정을 반복했다.

그림의 바탕이 되는 나무 패널에는 결이 있다. 이를 이용해 깊이감에 차이를 주기 위해 화면에 파스텔을 직접 칠한 뒤 손으로 문지를 때가 있고, 손에 파스텔 가루를 묻혀서 화면 위에 올릴 때가 있다. 후자의 방법을 마림칠¹⁷⁾이라 한다. 나는 열은 면을 만들어내기 위해 이 기법을 사용했다. 한번 나뭇결 틈에 파스텔이 들어가면 그 부분은 수정할 수 없다. 그렇기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다. 인내심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화면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작업할 때 내가 가져야 할 태도였다.

유리 등의 외부는 검은색 파스텔로 칠하고 내부는 블랙 제소(Gesso)만 바른 면으로 남겨뒀다. 등의 외부와 내부를 구분 짓기 위함이자, 화면 내에 다양한 질감이 나타나도록 만들기 위해서였다. 검은색 파스텔을 사용해 균일하게 칠한 면은 마치 스웨이드(Suede)와 같은 표면이 형성되었다. 보드랍고 광택 없는 재질감은 블랙 제소로 만들어낸 면이 매끄러우면서 열은 광을 띄는 것과 대비되었다. 나는 이 같은 재료의 특성을 토대로 검은색 파스텔을 활용해 깊이감 있는 어둠을 표현하고자 했다.

16) Golden GAC 100, 아크릴릭 폴리머로 미디엄의 한 종류이다.

17) 균일한 색면을 창조하기 위해 서포트에 파스텔 가루로 작업하는 방식, Michael Wright, 『파스텔화』, 삼호미디어, 1995, p.70



[작품 2]

[작품 2] 등의 초상-명멸, 116.8×80.3cm, soft pastel on panel, 2023



[작품 3]

[작품 3] 등의 초상-명멸, 116.8×80.3cm, soft pastel on panel, 2023

[작품 2]와 [작품 3]은 하나의 대상을 두 이미지로 촬영해 제작하였다. 왼쪽의 촛불은 금방 꺼질 듯이 위태로워 보이도록 했고 오른쪽 촛불은 안정적으로 타오르는 모습으로 연출했다. 나는 누군가의 소원이 자기 마음을 비추는 등불이라면,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을지라도 어느 순간 그 등불이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꺼질 듯 보이지만 다시 살아나는 촛불 이미지로 희망의 메시지를 담으려 했다.

촛불의 형태와 의미 전달이 연결성을 가진다고 생각해 초 외의 나머지

요소를 동일하게 만들어 두 초간의 차이가 눈에 띄게 하려 했다. 이를 위해 초 주변의 다른 요소를 제거하였다. 또한 대상을 확대하고 위로 긴 여백을 남겨 어둠에 눌리는 듯한 모습으로 연출했다. 배경은 검은색 파스텔로 균일하게 마무리했다.



[작품 4] 등의 초상, 65.1×53cm, soft pastel on panel, 2023

[작품 4]는 앞선 작품들과 달리 대상 주위의 공간을 드러낸 작업이다. 촛불이 들어있는 유리 등잔 주위 바닥에 얇은 반그늘이 드리워지게 했다. 나는 관람자가 내가 그린 등을 보며 자기를 들여다보길 바랐다. 이를 위한 명상의 공간을 떠올리며 [작품 4]를 제작했다. 복잡하지 않은 형태에 절제된 색조로 그리는 만큼 촛불과 등잔을 섬세하게 묘사하려 했다. 등의 내부도 파스텔을 칠하고 문지르는 과정을 반복해 미묘한 톤의 변화를 담아내려 노력했다. 나는 적막감과 평온함이 느껴지는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싶었다. 이를 위해 어둠 속의 밝음을 흑백 대비로 깊이 있게 드러내고자 했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빛에 시선을 집중시켜야 내가 기대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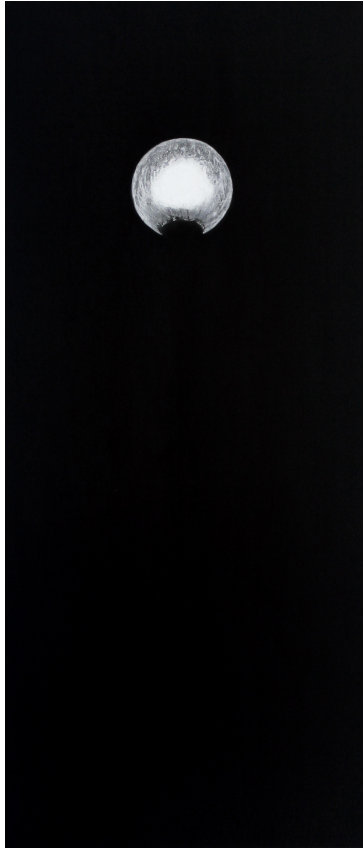
[작품 5] 등의 초상, 65.1×53cm, soft pastel, acrylic on panel, 2023-2024

나는 등불을 그릴 때 각 이미지에서 느껴지는 고유한 분위기를 회화에 반영하고자 한다. 수많은 사람이 존재하듯, 그들 각자가 지닌 내면의 빛도 여러 모습을 하고 있을 거라 믿는다. 그렇기에 다양한 등불의 모습을 포착해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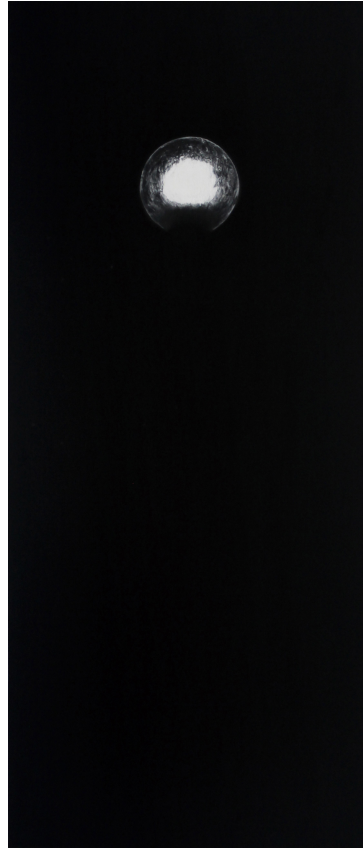
[작품 5]의 경우 등잔 속의 초를 확대해 마치 눈앞에서 초를 바라보는 듯한 시점으로 보여주고자 했다. 이에 더하여 화면 중앙쯤에 있는 촛불을 최대한 밝고 선명하게 표현하는 게 이 이미지를 그릴 때 가장 유념해야 할

부분이라고 여겼다. 이전 작업 과정들을 통해 소프트 파스텔로 표현할 수 있는 명도의 한계를 체감했고, 나는 새로운 방법의 필요성을 느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품 5]에 아크릴릭(acrylic)을 사용하는 시도를 해보았다.

스케치 단계 이후 흰색 아크릴릭을 촛불 부분에 얇게 올렸다. 아크릴릭이 칠해진 면은 매끄러워졌기 때문에, 그 위에 파스텔을 고착시키려면 새로운 요철을 만들어야 했다. 나는 파스텔을 갈아 가루로 만들고 아크릴릭을 칠한 부분에 올렸다. 그 위에 GAC 100과 물을 섞은 희석액을 뿌린 뒤 말리고 다시 파스텔을 올리는 과정을 반복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아크릴릭을 칠한 면이 파스텔로 만든 화면의 다른 부분과 동떨어져 보이지 않게 만들기 위함이었다. 두 번째는 파스텔이라는 재료와 표현 방법이 주제 의식과 연결되어 있기에 아크릴릭이 표면에 드러나지 않길 바랐기 때문이다. 내 작업에서 아크릴릭은 보조 재료이고, 파스텔을 올려야만 그림이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작품 6]



[작품 7]

[작품 6] 등의 초상, 116.8×50cm, soft pastel, acrylic on panel, 2023

[작품 7] 등의 초상, 116.8×50cm, soft pastel, acrylic on panel, 2023

[작품 6]과 [작품 7]은 등불에서 연상된 다른 대상을 떠올리며 작업하였다. 나는 사진 속 등근 등을 보며 마치 달의 표면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달 또한 오랜 시간 사람들이 소원을 빌어온 존재라는 점에서 내가 그리는 등의 상징성과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 생각했고, 이 착상을 전제로 작업을 진행하였다. 달을 볼 때와 비슷하게 올려다보는 구도와 아래로 긴 여백을 활용해 화면을 구성했다. 배경은 검은색 파스텔을 사용해 색면으로 칠하여

대상에 시선이 집중되게 했다.

달은 우리에게 언제나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 때로는 가느다란 초승달로, 때로는 가득 찬 보름달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낸다. 하지만 언제나 그 자리에서 빛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나는 이 점이 내면의 빛, 등불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했다. 시간이 지나 월상(月像)이 달라지듯 겉모습이 변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빛나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메시지를 비유적으로 전하고 싶었다. 이를 위해 명멸 연작처럼 하나의 대상을 두 이미지로 표현했다. 왼쪽 등은 환하게 빛나고 오른쪽 등은 어두운 막에 한층 가려진 듯 보이지만, 가운데 핵은 동일하게 빛을 발하는 모습으로 연출하여 여전히 밝게 빛을 내는 등불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다.

앞서 [작품 5]를 진행할 때 아크릴릭을 칠한 부분에 파스텔을 쌓으면 쉽게 벗겨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나는 [작품 6]과 [작품 7]에 아크릴릭과 파스텔 가루를 섞어서 올리는 시도를 하였다. 이 방법으로 아크릴릭으로 칠한 부분과 주변부의 자연스러운 연결, 파스텔 입자의 물성이 드러나는 효과를 기대했다. 실험을 통해 새로운 질감을 만들 수 있었지만, 수성 재료인 아크릴릭에 의해 파스텔 가루가 단단하게 뭉치는 한계가 있었다. 다만 나는 아크릴릭과 파스텔 가루의 결합으로 형성된 층이 안료를 붙잡을 수 있는 새로운 요철이 될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작품 8] 등의 초상, 145.5×97cm, soft pastel, acrylic on panel, 2023

[작품 8]은 [작품 4]에서 시도했던 공간감을 더 깊이 있게 드러내고자 한 작업이다. 퍼져나가는 빛의 모습과 바닥에 드리우는 그림자를 내려다보는 시점으로 구성해 실제 등이 있는 광경을 들여다보는 듯한 느낌을 주려 했다. 아울러 그림을 보는 이로 하여금 화면 속 등불 주위의 공기가 느껴지는 듯한 감각을 전하고 싶었다. 이를 위해 유리로 된 등의 안과 밖에서 일어나는 빛의 산란을 세밀하게 묘사해 실재감을 주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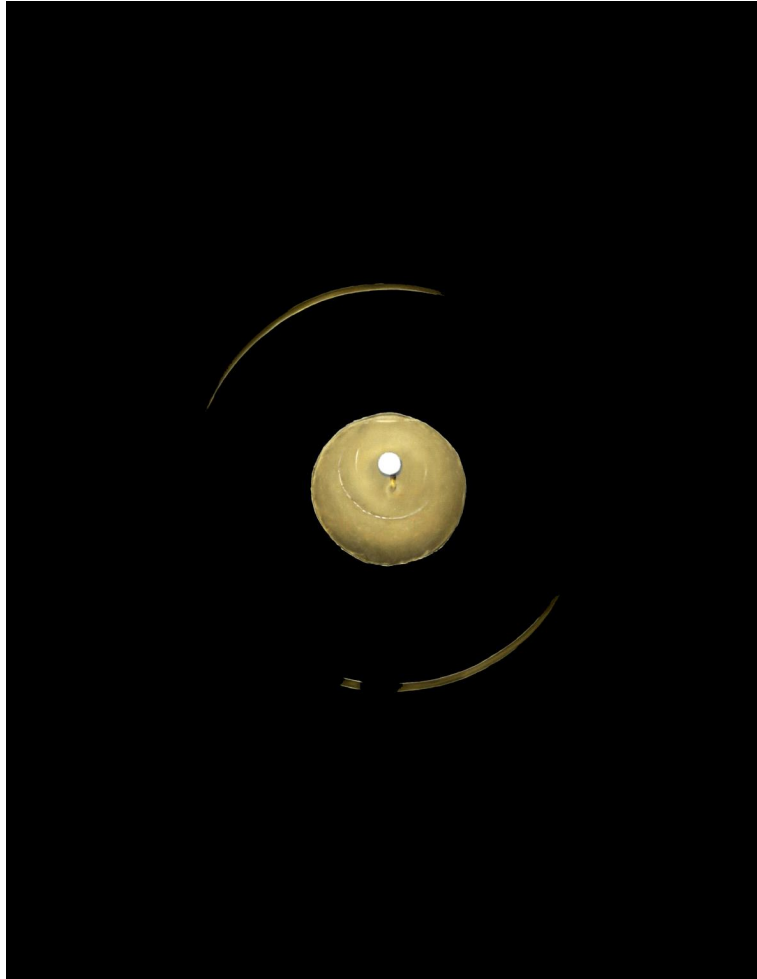
앞선 다른 작품들과 달리 실내에서 불을 밝히는 조명이나 초가 아닌 길을 비출 때 사용하는 램프를 선택했다. 희망을 나타내는 등불의 상징성을 램프의 특성을 통해 보여주고자 한 의도였다.



[작품 9] 등의 초상, 193.9×97cm, soft pastel, acrylic on panel, 2024

등의 초상 연작은 작품의 수가 많을수록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이미지가 다양해야 하고 화면의 비율 또한 구성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내 작업은 그림을 이루고 있는 요소가 많지 않고, 등불의 형상과 함께 여백이 주제 의식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작품 9]는 초뿐만 아니라 화면의 길이까지 확대한 대형 작업이다. 긴 여백을 남겨 위아래로 확장되는 듯한 느낌으로 연출했다.

회화는 순간을 붙잡아둘 수 있는 매체이다. 나는 화면 속 초의 아랫부분이 그림자에 의해 서서히 사라지게 해 오래도록 타는 촛불의 모습을 담아내고자 했다. 현실의 초는 유한한 대상이지만, 내가 그린 초가 소원을 담은 등불로 변모하는 과정을 거칠 때 불변성을 부여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보는 사람이 초시간적인 느낌을 받기를 바랐다.



[작품 10] 등의 초상, 145.5×112.1cm, oil on canvas, 2023-2024

[작품 10]은 지금까지 제작한 등의 초상 연작 중 유일하게 유화를 사용한 작업이다. 이미지를 보며 녹은 촛농에 의해 형성된 초의 매끄러운 표면과 이를 둘러싼 반영(反影)을 묘사하려면 유화의 물성이 적합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울러 이 등불에서 느껴지는 심상을 표현하기 위해 색조가 필요할 거라 판단했다. 그리고 나는 보는 사람의 시선이 중앙에 있는 불빛으로 집중되기를 원했다. 이를 위해서는 촛불과 그 주위를 둘러싼 초가 구분

되어야 했는데, 색을 제외할 경우 이 경계가 모호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상술한 세 가지 이유로 이 작품은 유화로 제작하게 되었다.

앞선 작업에서 나는 소프트 파스텔이라는 재료와 지지체인 나무 패널의 특성을 활용해 화면 내에 촉각적인 심상을 더하고자 했다. 이 그림은 유화를 사용하였기에 촉각적 표현의 방향성이 달라져야 했다. 직접 손으로 문지르며 그리는 방식 대신 초의 질감을 사실적으로 묘사해 보는 사람에게 마치 눈앞에 초가 놓인 듯한 실재감을 주는 방법을 택했다. 녹은 촛농의 미끄러운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기름을 많이 섞은 유화를 붓에 묻혀 세밀하게 그려냈다. 직접 만지지 않고 시각적으로 느끼는 촉각의 경험을 ‘시각적 촉감(visual tactility)’이라고 한다.¹⁸⁾ 나는 이 작업에서 시각적 촉감이라는,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촉각적인 표현을 보여주고자 했다.

배경은 검은색 유화로 균일하게 칠했다. 이때 매끈한 표면을 만들기 위해 신중하게 붓질을 했다. 붓이 지나간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면 조심스러운 붓질을 천천히, 여러 차례 반복해야 했다. 강한 마티에르는 보는 사람의 시선을 그림의 표면 위에 잡아둔다. 나는 작품을 통해 관람자를 화면 너머의 세계,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곳으로 들어서게 하고 싶었기 때문에 붓 자국 없이 반드러운 표면을 만들어야 했다.

나의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특징은 등불이라는 단일 대상과 그 주위를 둘러싼 여백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작품 안에 여백과 단순한 형태, 절제된 색조를 활용해 고요한 느낌을 만들어내려 했다. 이는 신비롭고 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관람자를 명상의 공간으로 인도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

18) 이영화, 석승민, 「공감각의 인지요소 중 시각적 촉감에 관한 연구 - 20세기 대표미술작품을 사례로 -」, 조형미디어학 20.1, 2017, p.161

Ⅲ. 결 론

이 논문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제작한 <등의 초상> 연작에 대해 분석한 글이다. 나의 소원을 표현하는 것에서 나아가 다른 사람의 소원 인지를 위하는 것으로 주제 의식을 확장한 과정과 이를 조형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한 것을 서술하였다.

나는 자기가 진정으로 바라는 바를 깨닫는 것이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기에 내가 그린 등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소원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하고 싶었다. 이를 위해 작품 안에 고요하고 묵상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색조를 제한하고 흑과 백을 주축으로 하여 빛과 어둠의 이미지를 구성했다. 더불어 건식 재료인 소프트 파스텔을 주로 사용했다. 소프트 파스텔은 화면에 정착이 쉽지 않은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등불의 형상이 갖춰질 때까지 소프트 파스텔을 계속해서 칠하고 문질렀다. 이 과정이 소원을 대하는 나의 간절함과 닮아있다고 느꼈다.

소원 인지라는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 나는 소프트 파스텔을 나뭇결이 드러나는 패널 위에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작업해 촉각적 심상을 활용하려 했다. 다만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패널의 요철은 촉각적 표현을 담아내기에 다소 깊이가 부족하다고 느껴졌다. 더불어 나무 패널의 결은 그 자체로 촉각적인 요소가 될 수 있기에 나는 이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따라서 이후에는 현재 사용하는 나무 패널보다 나뭇결이 살아있는 패널을 제작하여 작업하는 방식을 시도해 볼 계획이다.

이 글을 통해 소원에 대한 나의 소회를 밝힐 수 있었다. 그리고 나의 작품을 되돌아보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 의식과 조

형적인 방법론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작업의 발전을 위한 실마리 또한 발견했다. 이 연구를 단초로 삼아 내 작업의 발전 방향에 대한 고민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가 그린 등이 누군가의 마음을 비추는 등불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림을 그린다. 내가 등불을 보고 스스로의 소원을 인지한 것처럼, 그래서 작업을 이어온 것처럼 내 작품의 의미를 알게 된 사람들도 자기 내면의 소원을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 소원이라는 단어로 국한하지 않더라도,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인지하는 출발선이 되었으면 한다.

참 고 문 헌

- 구미래, 「연등(燃燈)의 상징성과 민속적 수용양상」, 불교학보 0.66, 2013
- 김승환, 『서양미술과 촛불』, 아르테스 시각문화연구소, 2022
- 네이버 국어사전, 표준국어대사전,
<https://ko.dict.naver.com/#/entry/koko/50747662a638410ca098f494a2817842>
- 문정미, 「디지털 시대의 흑백영화 미학」,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6.2, 2022
- 박선영, 권석만, 「삶의 의미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임상적 함의」,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3, 2012
- 이영화, 석승민, 「공감각의 인지요소 중 시각적 촉감에 관한 연구 -
20세기 대표미술작품을 사례로 -」, 조형미디어학 20.1,
2017
- 이윤수, 「전통등(燈)의 현대적 활용을 위한 콘텐츠 연구」, 콘텐츠 문화 8,
2016
- 이주현, 「촉각 자극을 통한 감정 조절 중재 효과를 가지는 조형예술
작품」, 디자인학연구 35.3, 2022
- 장영란, 「불의 상징과 형이상학」, 철학과 현상학 연구 38, 2008
- 조승연, 「불과 민속 - 불을 신성시하고 숭배하는 종교, 조로아스터교」,
防災와 保險 121, 2007
- Michael Wright, 『파스텔화』, 삼호미디어, 1995
- MacDonald, Lindsay, 『색채와 컴퓨터 그래픽』,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1

ABSTRACT

A Study of Light (燈) Painting for the Perception of Wishes - Focusing on my work -

Bae, Yun Jin
Dept. of Western Paint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This paper explores the development and visual expression of the series Portraits of Light (燈), created between 2022 and 2024. Portraits of Light refers to paintings portraying wishes through the metaphor of lanterns. The work stems from the idea that light, deeply symbolic and essential in human life, has historically been a vessel for hope and desire.

Wishing, a universal and enduring act, has often taken the form of rituals imbued with cultural meaning. In studying these traditions, I observed a strong connection between light and wish-making. Inspired by this, I adopted the lantern as a symbolic form to express human desire. Initially, I created self-portraits that represented my personal wishes through the image of a lantern. The act of painting these lanterns became a personal ritual, offering me emotional stability and a sense of

connection to my aspirations. As the work developed, I expanded its focus to include the wishes of others, creating a series of diverse lantern portraits that invite viewers to reflect on their own desire.

In this series, I used black and white to emphasize the contrast between light and darkness, highlighting the radiance of the lanterns. And I used soft pastels, a material that evokes a tactile feel. Soft pastels were applied through a repetitive process of layering and rubbing, a method that felt closely tied to the earnestness of wish-making.

In this paper, I review the thematic and theoretical background of my work, focusing on the perception of wishes, and describe how this theme was expressed artistically. To achieve this, I explored the role that the element of touch can play in painting. I also looked into artists and works that use candles as a painting material, to see if they relate to my own work. Through this study, I aim to explore the potential directions and growth of my work, providing a foundation for future artistic development.